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배포 일시	2021. 6. 23.(수) 총 4매(본문 2, 참고 2)		
담당 부서	해사안전정책과	담당자	• 과장 정태성, 서기관 권순태, 사무관 최종영 • ☎ (044) 200-5810, 5863, 5825		
보도일시		2021년 6월 24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3.(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해수부, 국제해사기구(IMO) 제125차 이사회 참석 **- 회원국 감사제도, 총회 개최방식 및 이사국 선거 투표방법 등 논의 예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6월 28일(월)부터 7월 2일(금)까지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는 ‘국제해사기구(IMO)* 제125차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원국 감사제도 등에 대한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국제 규범 제·개정 및 이행을 촉진하는 UN산하 전문기구(정회원: 174개국, 준회원: 3개국)

국제해사기구의 이사회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직원 임명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등 행정적 업무뿐만 아니라 국제협약의 제·개정을 위한 작업계획을 심의하는 등 기구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총회에서 선출된 40개 이사국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11월에 국제 해운을 대표하는 A그룹 이사국으로 처음 선출된 후 20년간(10회 연속) A그룹 이사국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 국제해사기구 이사국(40개국) 현황 >

그 룹	구 분	국 가
A그룹 (10개국)	주요 해운국	대한민국, 그리스, 노르웨이, 러시아,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파나마
B그룹 (10개국)	주요 화주국	네덜란드, 독일, 브라질,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인도, 캐나다, 프랑스, 호주
C그룹 (20개국)	지역 대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덴마크,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몰타, 바하마, 벨기에, 사이프러스, 싱가포르, 이집트,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칠레, 케냐, 쿠웨이트, 태국, 터키, 페루, 필리핀

이번 제125차 이사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0개 이사국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KMC),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목포해양대학교 등 해사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회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해사기구가 회원국의 국제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회원국감사(IMSAS*)’를 원격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과 회원국별 감사시기, 감사방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IMSAS(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 IMO가 회원국의 국제협약 이행실태(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특히,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제32차 국제해사기구 총회’를 원격으로 개최하는 방안과 2년 임기(2022~2023)의 이사국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방식이 이번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A그룹 이사국 11연임을 위해 이사국 선거에 입후보(5월 5일)한 상태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우리나라는 해운 5위, 조선 1위의 해양강국으로 20년간 국제해사기구 A그룹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이번 이사회에서 다루어질 회원국감사 시행방법, 이사국 선거방식 등 주요 의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설립연혁

- 1912년 「타이타닉」 호 침몰사고 후 「해상인명안전협약」 채택(1914.1)
- 정부간 해사자문기구(IMCO) 설립('59. 1. 6)
- 기구의 명칭을 「국제해사기구(IMO)」로 변경('82. 5. 22)

□ 회 원

- 회 원 수 : 정회원 174개국, 준회원 3개국(홍콩, 마카오, 파로제도)
- 우리나라 가입 : '62. 4. 10 (북한가입 : '86. 4. 16)

□ 구 성 : 총회, 이사회, 위원회(5개), 전문위원회(7개)



* 해사안전위원회 산하의 총 7개 전문위원회(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 등) 운영

□ IMO의 주요기능

- 해상인명안전 및 해양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제·개정

구 분	대표 협약
해상인명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 국제만재흘수선협약(Loadlines) ■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약(SAR)
해상불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방지협약(SUA)
선박기인 해양오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LC)
유류오염사고 보상 및 책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CLC) ■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협약(FUND)
선원자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훈련·자격증명 및 당직유지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 59개 국제협약과 1,950여종의 결의서가 채택(발효)되어 시행 중

□ IMO 회의 전경

